

인 · 아웃박스 개발로 활로 개척

세계 최고 선물세트 기업으로 우뚝



이 재 석
아트페이퍼 대표

우리 식생활이 고급화되고 웰빙화 되면서 대량의 소비보다는 소량의 소비로 바뀌면서 이들 제품을 포장하는 박스 또한 고급화, 기능화 되면서 선물용 포장박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경향에 맞춰 선물세트분야에선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는 물론 수출시장까지 노크하고 있는 아트페이퍼(대표 이재석)는 1984년 창업 후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이 분야 전문기업의 선도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업당시 수작업에 의한 완구상자의 윈도우 창 작업을 시작으로 셋업박스 자체개발, 보냉상자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할 때까지 아트페이퍼는 기술개발에 전념,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 공급에 주력했다.

아트페이퍼에서 특히 주력한 것은 지기구조 개발로 가격을 절감하고 여기에 정육과 수산제품의 신선함을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보냉, 보온효과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최우선을 두었다.

그 결과 농축수산 선물 셋트개발로 특허를 17종이나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부분 백화점 및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하게 되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게 요구사항이 많아지면서 매년 제품 특성에 맞는 신제품을 출시, 시장 점유를 높여가고 있다.

아트페이퍼 이재석 사장이 지기구조의 개발에 나선 것은 그가 전공한 토목기술을 접목시키려는 아이디어에서

기인한다.

토목을 전공한 이 사장은 진열공간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공간 산출을 위해 토목기술을 응용했고, 오토 캐드를 직접 운용해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계 설계에만 사용하던 오토 캐드를 지기구조에 응용했고 종이를 이용한 보냉소재 개발을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종이를 이용한 보냉 상자를 개발하게 되었다.

“포장은 무한한 개발 분야

이며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 제품을 특화시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이재석 사장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펼치고 있다.

아트페이퍼의 생산 제품들은 선어, 굴비 등 냉동수산물, 건어물 선물세트를 담은 수산물 분야와 한우, 육포, 냉동 갈비세트를 담은 축산물, 사과, 배 등 농산물세트, 전통 특수상자, 소품정리함 등 종이를 이용한 상자분야이다.

그러나 이 업체에서 생산하

는 제품들은 일반 제품들과는 구조적으로 다르고 기능이 다른 제품들로 내용물을 꺼내고 다시 사용하거나 장식을 해도 효과가 뛰어난 제품들이다.

해동기획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1999년 아트페이퍼로 회사명을 바꾸면서 셋업 기계를 국산화 하고 각종 화장품세트를 시작으로 커피 및 차류, KBS영상사업단 비디오세트, 보냉선물세트 등 개발된 제품으로 시장을 넓혀가기 시작해 국내 최고의 종이 패키지업체로 도약하게



▲ 아트페이퍼 전경

ART PAPER

되었다.

종이관련 포장제품을 생산하다 보니 포장시장은 다양한 포장재가 필요하고 이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포장과 관련한 각기 다른 업종의 회사들이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10개 회사가 모여 한국포장재 협의회를 발족하고 운영하면

서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 3년째인 올해에는 모든 회원사들의 매출이 급신장하고 다른 업체들이 참여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원은 디자인, 인박스, 아울박스, 비닐, 스티로폼, 트레이, 특수지, 포장재 유통 등 각 분야 전문기업들로 오랜 경험과 전통을 바탕으로 축적

된 기술력과 영업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증대는 물론 공동 홍보를 통한 이미지 개선 효과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각 분야 전문 업체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조언과 기술 접목이 가능해 기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 생산과정



▲ 다양한 종류의 생산 샘플

이같이 공동 노력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을 결속하고 이끌고 있는 것도 아트페이퍼 이재석 사장이다.

혼자만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이바지하고 싶다는 이재석 사장은 “개발된 제품을 모방하여 시장 질서를 흐리고 다른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세태가 없

어졌으면 한다”며 자기만의 독특한 제품 개발로 승부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종이를 이용한 보냉시장의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 중이며 올해안에 출시할 계획이라는 이재석 사장은 상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신선함을 유지시키는 아름답고 기능성이 우수한 최첨

단 패키지 상품으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상품마다 특성에 맞는 첨단 포장방법을 새롭게 제안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 인력 및 생산설비를 갖추고 유통업체의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트페이퍼가 포장상자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부여해 가고 있다. ☐

〈鎭〉